



Dancing Story in Seoul

몸으로 대화하는 무용수만 카메라에 담아내는 세계적 사진작가 조던 매터.

그들의 열정적인 춤사위를 통해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말하고 싶단다.

첫 번째 개인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던 매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 김주원과 조우했다.

에디터 정순영(jsy24@noblesse.com) 사진 조던 매터(Jordan Matter)

레드 컬러 터틀넥과 슬릿 디테일의 블랙 스트라이프 팬츠 Vivienne Westwood.



김주원_ 블랙 레드 컬러 아우터 Bottega Veneta.

박종석_ 블랙 터틀넥과 팬츠 Gucci.



김주원_ 페미닌한 디자인의 벨벳 원피스 **Ralph Laure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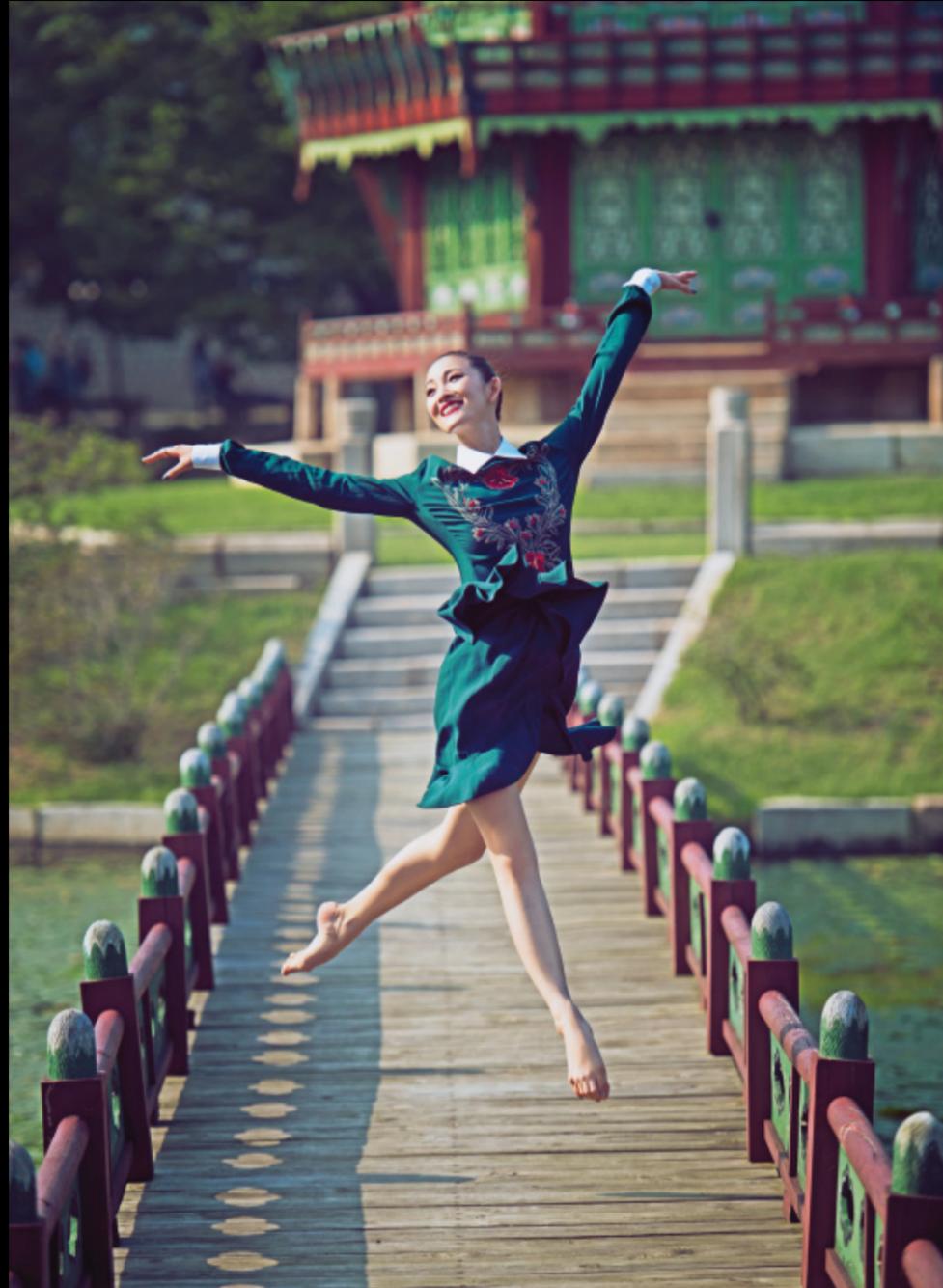
박종석_ 머스터드 컬러 셔츠와 슈트, 슈즈 모두 **Solid Homme by Woo Young Mi.**



김주원_오렌지 컬러 드레이밍 원피스 Gucci.
박종석_블랙 셔츠 S.T. Dupont. 블랙 팬츠 Hermès.



스카프를 착용한 듯한 긴 천이 오리엔탈 느낌을 풍기는 원피스 Celine.



플라워 자수 디테일의 초록색 원피스 Moschino.



시스루 셔츠 Lanvin. 옐로 팬츠 Solid Homme by Woo Young Mi.



순간, 그 찰나에 대하여

몇 년 전 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진 한 장. 고백하건대 잠시 잠깐 '합성'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꽃밭 위로 사뿐히 날아오른 한 남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듯 몸을 활처럼 휘면서 세상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다. 놀랍도록 경이로운 그 순간을 포착해 중력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자유롭게 하는 이,

바로 미국의 사진작가 조던 매터다.
<노블레스>와 단독 화보 촬영을 마친 그와 마주했다.

에디터 심민아(withsma@noblesse.com) 사진 김제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비현실적 사진 한 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뉴욕 출신의 사진작가 조던 매터(Jordan Matter)가 30℃를 웃도는 7월 말 한국을 찾았다. 그는 역시 운이 좋았다. 몇 주간 지지 부진하게 비를 뿌린 장마가 물러가고 모처럼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역, 경복궁, 광화문 등을 돌아다니며 진행한 화보 촬영에 지칠 만도 한데, 발레리나 김주원을 향해 거침없이 '한 번 더'를 외치는 이 남자의 열정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사실 그가 카메라를 잡은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에 우연히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사진전을 보고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선 조던 매터는 2009년부터 줄곧 세계적 무용수와 협업을 통해 인체의 움직임에 담긴 예술성과 아름다운 열정을 포착해왔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 실력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뒤늦게 맞본 사진 작업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1000분의 1초를 렌즈에 담기 위해 무용수들과 함께 눈밭을 구르고 아스팔트 위에서 수십 번씩 점프했다. 그뿐 아니다. 횡단보도, 지하철역, 거리 등 일상의 공간을 무대 삼아 트램펄린이나 와이어 같은 안전장치 없이 촬영하는 조던 매터의 사진은 순간 포착의 미학을 제대로 살린 덕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감동적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진 속 세상은 격정적인 멜로드라마인 동시에 버라이어티한 일로 가득한 코믹 영화 같고, 한 편의 웅장한 뮤지컬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용수들을 카메라에 담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명성은 세계적이다. 지난해에 그의 사진집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Dancers Among Us)>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012 반스앤노블 최고의 책으로 선정, 미국을 넘어 세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열풍은 한국에까지 미쳤다. 지난 4월 국내에서도 출간돼 미술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인기에 힘입어 사비나미술관에서 9월 22일까지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린다. 평범한 일상을 아름답고 박진감 넘치는 사진으로 변화시키고, 따분한 삶의 공간을 유쾌한 춤으로 물들이는 이 남자 조던 매터. 그와 나눈 이야기는 작품만큼이나 뜨겁고 열정으로 충만했다.

서울역, 경복궁, 광화문 등 한국적 정서가 가득한 서울의 랜드마크에서 촬영했는데, <노블레스>와 함께한 첫 촬영이 어떠셨나요? 서울은 전통과 현대적 아름다움이 멋지게 어우러진 도시 같습니다. 특히 경복궁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의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이번에 <노블레스>와 촬영한 사진은 다음 전시에 꼭 걸고 싶을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과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무용수들의 사진을 보며 조던 매터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도 대단했는데 실감하셨

나요?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 덕분에 온라인에서 어둠에 묻혀 있던 제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거죠. 그중 가장 인기를 끈 작품이 바로 뉴욕의 한 도서관에서 경비원의 눈을 피해 몰래 촬영한 '벼락치기(Cream Session)'입니다. 죽은 듯 시체처럼 누워 있는 컨셉이었는데, 한두 해가 흐른 뒤 '시체놀이(Planking)'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플랭킹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죠.

세계적 댄서들과 촬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가장 고생스럽게 촬영한 작품이 있나요? 이번 전시에 들고 나온 'Charity Drive'라는 작품입니다. 모든 무용수들이 팔굽혀펴기 자세로 있다가 일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팔을 쭉 뻗는 고난도 동작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동작이 어긋나면 다시 촬영해야 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파김치가 됐죠. 무용수들이 더는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반복해서 촬영했습니다. 결국 손바닥에서 피를 보고서야 끝났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시에스타 비치에서 촬영한 '너를 붙잡는 순간(Taken)'이라는 작품은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촬영 과정은 담은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힘든 과정 속에서 탄생한 이런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배경이 반쯤 살려준 작품입니다. 미국 최고의 해변으로 알려진 플로리다 주의 시에스타 비치로 새러소타 발레단 단원 4명을 이끌고 날아갔죠. 정말 어떤 촬영 계획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희색빛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잘 짜인 영화 시나리오처럼 때마침 사방에서 갈매기가 날아들었고, 그 순간 무엇을 카메라에 담아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갈매기에게 먹이를 던져주니 잔뜩 굶주린 무리가 무섭게 달려들더라고요. 오싹한 체험이었지만 결과물이 훌륭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조류 공포증이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한 컨셉인 것 같아요.

사전에 촬영 컨셉을 계획하거나 장소 협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즉흥적으로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당신의 촬영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웃음) 제 촬영

조던 매터 사진전 <Dancers Among Us>
장소 사비나미술관
기간 9월 22일까지
문의 736-4371, www.savinamuseum.com





영에선 '행운(luck)'과 '뜻밖의 재미(serendipity)'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Waiting for a Ride'를 촬영할 당시 무용수에게 '너는 배낭여행 중이고 탈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만 제시해줬고 그 뒤의 상황은 전부 무용수에게 맡겼어요. 베스트 컷을 찾아 동작을 반복하던 중 마침 차가 한 대 지나갔고, 차 안의 푸들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개를 스카우트했죠. 돌이켜보면 수많은 요행수와 약간의 눈먼 행운이 없었다면 제 작품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웃음)

당신의 사진은 오래도록 관객을 붙잡아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인체의 아름다움과 기발한 아이디어, 인생의 희로애락 그리고 유머가 적절히 녹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거리도 당신이 찍으면 멋진 그림이 됩니다. 더욱이 인공조명, 와이어는 물론 후보정 작업도 없이 완성한 작품이라니 그저 놀라기만 합니다. 광고뿐 아니라 잡지에 실리는 사진도 후보정을 당연시하는 요즘이니까요. 이런 컨셉의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 영감의 원천은 가족입니다. 아들 허드슨이 장난감 버스를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불현듯 익숙한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특별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경중경중 뿔 정도로 좋아하는 세 살배기 아들 녀석을 보며 그 아이의 눈에 투영된 세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얼마 후, 2009년 3월에 폴 테일러 댄스 컴퍼니 소속 무용수 제프리 스미스가 사진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폴 테일러

댄스 컴퍼니의 단원들이 제 작품의 모델이 되겠다고 나섰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그들의 열정에 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동작을 소화하기 때문에 트램펄린을 사용하거나 포토샵으로 보정할 필요가 없었죠.

무용수와 함께 촬영한 지 횡수로 5년,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게 된 건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는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야구 선수에서 배우로, 다시 사진작가로 인생의 패턴을 바꾸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프로 사진가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배우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아내 로렌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갔죠. 산 정상에서 풍경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사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흑백사진 입문 과정을 배웠습니다. 제가 인화한 첫 사진을 본 순간 사진가가 제 천직임을 느꼈죠.(웃음)

사진가로 전향했을 때 영화감독인 아버지의 응원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술가 집안입니다. 증조부는 화가였고, 할아버지 하버트 매터도 유명한 사진작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예일 대학교 사진과 교수였습니다. 할머니 메르세데스 칼스 매터 역시 화가로 뉴욕 스튜디오 스쿨의 창시자입니다. 조부모께서는 잭슨 폴록, 알렉산더 콜더, 빌럼 데 쿠닝 등 세계적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셨기 때문에 유년기에 그분들을 종종 뵈 수 있었죠. 아버지 엘릭스 매터는 영화감독이자 제작자로 활동하셨고, 어머니는 모델이자 푸드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유명 예술인과 교류가 잦았고, 특히 아버지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신작 'Athletes Among Us'는 무용수가 아닌 운동선수가 여럿 등장합니다. 운동선수의 특성에 맞게 촬영한 사진들은 피식 미소 짓게 할 만큼 유쾌하고 신선합니다. 작품의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첫 촬영 때부터 지금까지 모델 섭외 때문에 고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촬영 장소를 미리 공지하고 촬영 중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을 올리죠.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애틀랜타 발레단, 파슨스 댄스 컴퍼니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무용수들이 제 작품의 모델이 되고 싶다고 프리포즈를 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선발 기준은 없고 열정만 봅니다.

무용수의 기량을 120% 끌어내는 건 당신의 크리에이티브한 발상과 무한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무용수들에게 어떤 말로 기를 불어넣나요? 열정적으로 촬영하는 제 모습을 보고 무용수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한마디가 있어요. Ok! One More.(웃음)

무용수의 현란한 몸짓을 빛내줄 완벽한 배경을 찾기 위해 구도를 고민 중인 조던 매터



무용수 못지않게 역동적인 포즈를 취한 사진작가 조던 매터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한 열정적인 사진작가 조던 매터



Behind Story of the Scene

7월 26일 조던 매터와 함께한 화보 촬영. 딱딱한 시멘트 바닥, 흠이 갈린 잔디는 무용수에게 익숙한 무대가 아니었다. 35°C에 육박하는 맹렬 아래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준 발레리나 김주원과 발레리노 박종석. 몸은 땀범벅이 될지라도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사뿐히 몸을 날린 그날의 생생한 비하인드 컷을 공개한다.

모델 김주원, 박종석 헤어 한지선
메이크업 공혜련(A by BOM) 어시스트 김자혜, 강주희



이른 아침, 조던 매터의 뮤즈가 된 발레리나 김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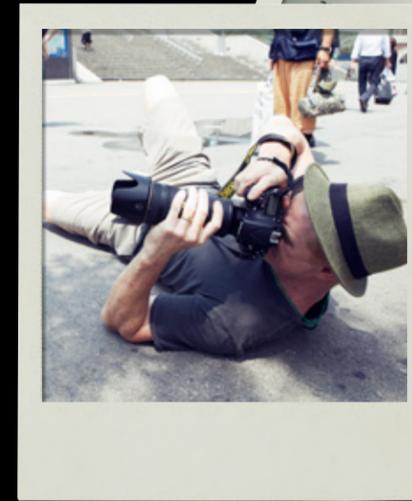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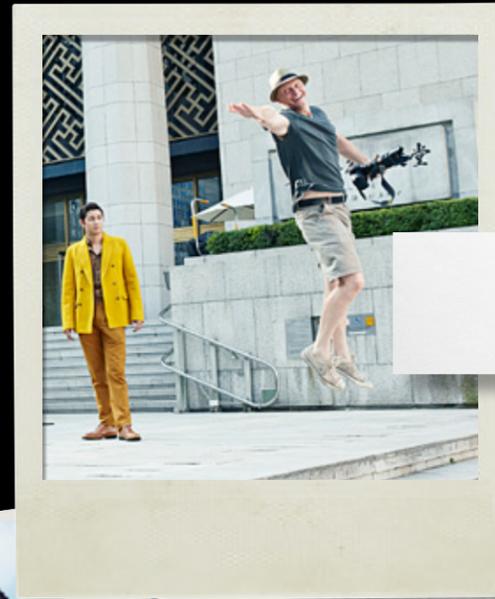


조던 매터 화보 촬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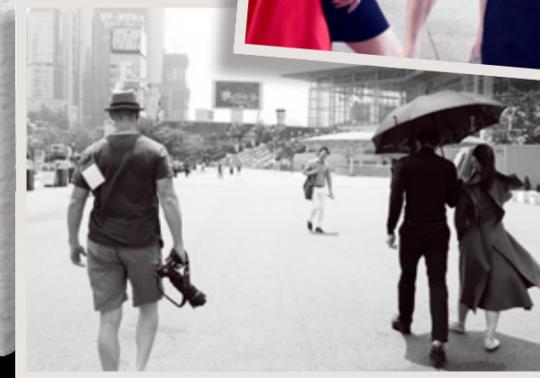


세계적 사진작가 조던 매터와 (노블레스)의 만남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매체가 화보 촬영장을 방문해 김주원의 드라마틱한 움직임에 담았다.

Someplace with FENDI



Jordan M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Dancers Among Us



12